

전남도·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가 뽑은 올해 우수 어업인 15명

새 비전·성실함으로 어촌 활기 특색있는 기술 개발 '성공 신화'

올 한해 전남도와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는 15명의 우수 어업인을 조명했다. 이들은 모두 자신의 어촌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으며, 모범사례로 손꼽히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또 귀어하거나 오랜 기간 고향에 살면서 어촌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갖고 단순 생산이 아닌 가공·유통에 진출, 도시와의 연계 시스템을 성실하게 구축했다.

이들의 활약은 도시로 유출된 어촌 청년들은 물론 일자리를 찾지 못한 도시 청년들에게도 알려지면서 '귀어·귀촌'의 새로운 계기를 주고 있다는 평가다.

완도 우성어시장에서 '메이저수산'을 운영하고 있는 이현구(38) 대표는 업체 이름처럼 전북 양식·판매 부문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 어촌계장을 맡은 그는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았던 마을의 전복양식 실태·현황을 통계를 만들어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줬다.

영광군 범성면의 '정산양만영어조합'인 서지훈(34) 관리소장은 연봉 1200만원의 '말단 직원'에서 연봉 7000만원의 관리직으로 '승승장구'하며 '청년취업 성공신화'를 써가고 있다.

그는 청년들에게 "열정과 노력만 있다면 어디에서든 꿈과 실력을 펼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신의도6형제소금밭'을 운영하는 6형제 중 셋째인 강선홍(47) 대표는 KBS 프로그램 '1박2일', '인간극장'에

어업 6차산업화 이끌고

청년 귀어·귀촌 힘보태

나오며 전국적 유명세를 탔다. 그는 신안 명품 천일염으로 세계인의 입맛 사로잡겠다는 포부를 지니고 있다.

고흥군 도덕면 오마리에 자리한 물김 가공업체 '하나수산'과 자반 가공업체 '(주)장출푸드'를 운영하고 있는 이나영(여·43) 대표는 연매출 120억원을 올리며 지역 대표 기업인으로 인정받았다.

신안서 3대째 어업을 하고 있는 어선 어업계 막둥이 김동희(27) 선장, 여수에서 전북으로 수산 역대 매출을 내는 '바다수산' 최동익(50) 대표, 보성 대표 특산물인 벌교꼬막을 고추장·통조림으로 만들며 어촌 6차산업을 실천하는 (주)벌교꼬막 서흥석(49) 대표, 수제 김을 생산하며 감진 서중마을을 활기찬 어촌 체험마을로 탈바꿈 시킨 강남원(62) 위 원장도 만났다.

젊음없는 연구로 자신만의 생산·기술을 개발한 '학구파'도 있었다. 무안 청솔수산의 윤락진(54) 대표는 11년 연구 끝에 다금바리보다 더 귀하다는 불바리의 대량 생산에 성공했다.

신안군 도초도의 어업인들이 힘을 모아 설립한 신안천일염(주) 경영을 맡고 있는 이성재(57) 대표는 국내 최초 천일염 염전이력제를 성공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영광 '청우 F&B' 장영진(38) 대표는 액정 공장 가운데서 국내 처음으로 기업부설연구소를 세우며 액정 숙성기간을 3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는 혁신적인 성과를 거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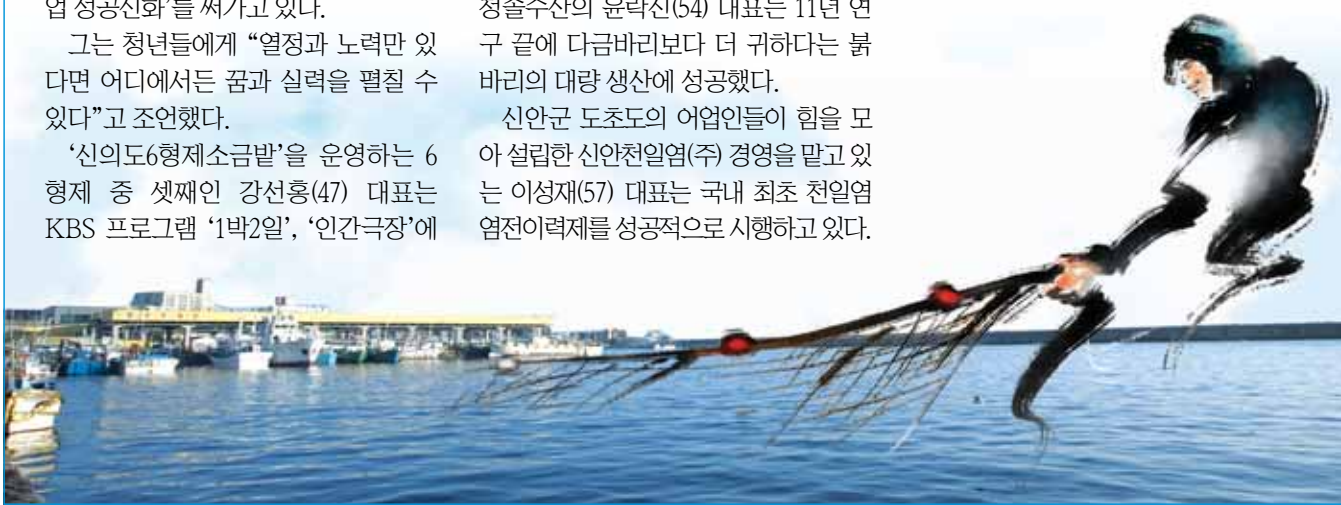
상공에는 노력만한 요건이 없다. 연고 없는 완도 보길도서 전복과 가리비 양식을 하고 있는 조상현(42)씨는 마을 일과 봉사에 적극적으로 나서 '스마일 맨'이라 불린다.

외한 위기로 고비를 맞았지만 특유의 성실함으로 연간 김 500조를 생산하는 박문심(61)·김동일(66)씨 부부도 있다.

장흥군 대덕읍 내저어촌계장을 맡으면서 마을 현안에 앞장서고 있는 김우진(41) 계장도 지역사회에서 공로를 인정받고 있다.

완도에서 툿·다시마·미역을 한해 600t씩 생산하는 지명철(39)씨는 "이상 기온으로 예기치 못한 상황에 어민들이 애를 먹기도 하지만 공동체 정신으로 뭉쳐 위기를 기회로 삼도록 노력하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백희준기자 bhj@kwangju.co.kr



남원시 출산장려금 대폭 지원 ... 최대 1000만원

이색 축하선물도 지급

남원시가 출산장려금을 대폭 올린다. 남원시는 내년부터 출산 장려금을 첫째 아이의 경우 200만원, 둘째 아이는 500만원, 셋째 이상은 1000만원을 주는 것으로 결정했다.

그동안은 첫째 50만원, 둘째 100만원, 셋째 300만원, 넷째 이상 400만원이었다.

남원시는 또 산모의 산후 조리과 신생아의 양육을 돕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과 출산 축하용품 지원사업 등도 기존과 같이 진행한다.

시는 산후조리원이 없는 지역실정을 감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서비스'를 모든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원해왔다.

남원시는 출산 붐 분위기 조성을 위해

'시장에게 받는 축하전화', '지역신문에 신생아 사진과 축하 글 게재', '액자 만들어 주기', '민간기업 협약을 통한 출산축하용품과 시 지체 축하용품 지원' 사업도 추진한다.

남원시 관계자는 "경제적 부담으로 출산을 기피하는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려고 출산장려금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남원=백성기자 bs8787@

익산시 방치된 수도산 근린공원 등 4곳 재생 사업 추진

2022년까지 민간투자 유치 '도시공원 아파트화' 우려도

익산시가 도시계획시설로 묶인 채 장기간 방치된 근린공원 4곳을 민간 투자를 받아 공원으로 조성하기로 했다.

하지만 민간이 나서 공원을 개발할 경우 일정 부분은 고층아파트 부지 등으로 개발해 수익을 창출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벌써부터 난개발이 우려되고 있다.

수익성만을 고려한 고층 아파트 개발에 치중하는 대신, 공공성을 가미한 공원개발 방식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익산시는 민간투자 사업제안서가 제출된 수도산, 모인, 복일, 팔봉공원 등 4곳을 2022년까지 민간공원으로 만들기로 하고 27일 밝혔다.

공원별 대상면적은 모인공원의 경우 12만2001㎡, 마동공원(25만3897㎡), 수도산공원(34만6039㎡), 팔봉공원(69만2248㎡) 등이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사업자가 공원부지 전체를 매입해 70% 이상 부지에 각종 공원 시설을 조성한 뒤 부지와 시설은 시에 기부채납하고 30% 미만 부지에 비공원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런 개발방식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전북 도내에서는

처음 시도되는 방식이지만 민간 개발 대부분이 고층아파트 단지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점에서 '도시공원의 아파트화'를 조려할 것이라는 반대 목소리가 전국적으로 끊이지 않고 있다.

공원면적의 30%에 해당하는 지역에 상업시설을 조성할 경우 공원의 본래 기능인 쾌적성, 환경성, 조망권이 침해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당장 광주에서는 환경단체 등이 반발하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 때문에 시민 입장에서 공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방향의 정책 추진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익산=유정영기자 yjy@kwangju.co.kr

"친구들아! 도서관에 놀러가자~" 순창 장난감도서관 오픈

순창군이 장난감도서관이 문을 열었다. 순창군은 27일 문화의 집에서 장난감 도서관 개관식을 개최했다.

도서관은 문화의 집 1층에 4억 3000만원을 들여 175.7㎡ 규모로 꾸며졌으며 영·유아의 성장에 맞춘 장난감 335종 988여점을 갖췄다. 도서관 안에는 대어실, 액션 볼 놀이실, 역할놀이실, 장난감 소독실, 북카페, 수유실 등도 마련됐다.

이용시간은 화~금요일 오전 10시~오후 5시까지로 월·일요일과 법정 공휴일에는 휴관한다. 지역 미취학 아동이면 누구나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고 연회비는 일반회원 2만원, 어린이집 등 시설회원은 인원수에 따라 3만~5만원까지를 받는다.

/순창=장영근기자 jyg@kwangju.co.kr



어린이들이 27일 문을 연 장난감 도서관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다. <순창군 제공>

새 얼굴

"도·농 지역 맞춤형 치안활동 전개"

한도연 정읍경찰서장



"도·농 복합형 도시인 지역 실정에 맞는 치안활동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한도연 신임 정읍경찰서장(사진)은 27일 "지역실정에 맞는 치안활동, 기본에 충실한 경찰 활동으로 안전하고 행복한 정읍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고 말했다.

한 서장은 동국대 경찰행정학과를 나와 경찰간부후보(38기)로 입문, 부산서 생활안전과장, 전북청 홍보담당관, 무주경찰서장 등을 지냈다. /정읍=백성기자·전북취재본부장

ABC협회 인증 호남 최대 발행부수 광주일보는 지역 대표 정론지입니다

방수 부분설비(누수)

부위별 방수시스템!!
분야별 방수 시스템!!
최적의 방수 시스템!!

"최선을 다하여 성실 시공합니다"

광주 062)676-7719
전남 061)375-7719

무료견적 시공상담

방수전문그룹 CHILMAN CMTECH
광주, 전남 시공회사 (주)씨엠테크복합방수

걱정하지 마세요!!
"철만표방수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유사품, 모방품에 주의하세요!!
시공 및 제품 판매 / 셀프시공가능

(주)씨엠테크복합방수 "소비자가 인정했습니다"

정통 차이나이스 레스토랑 **홍메이**가 오픈하였습니다.

"최고의 음식" "최상의 서비스"를 즐길 수 있도록 저희 직원들은 정성을 다해 준비하겠습니다.

정통중화요리 | 가족모임 · 비즈니스모임 · 단체석완비

紅梅 홍메이

- 각종 행사를 위한 품격있는 장소 -

화순 엘리체 골프장 주방장이 직접 요리하는 품격있는 중국집!

예약문의. 062)571-5531

광주시 북구 설죽로 419(삼각동 507-5) 일곡 엘리체 프라이م APT 상가 115동 2F